



가수 김연자 데뷔 40주년 기념 공연...내달 11일 DJ센터

“40년 노래 인생 고향 팬들께 보여드리는 무대”

1일 화사한 꽃분홍색 옷을 입은 그녀가 인터뷰 장소인 광주 신양파크호텔로 들어섰다. 자그마한 체구에 나이를 가늠기 어려운 외모가 눈에 띄었다. 인터뷰 중 ‘공개’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 광주 서동 128번지에서 태어난 그녀는 ‘이발소집 딸’에서 ‘스타’가 됐다. 올해로 데뷔 40년을 맞은 가수 김연자(55) 이야기다.

“가수 되겠다고 고향을 떠난 게 14살 때였다. 서울과 일본에서 활동하지만 한번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다. 40주년 공연은 고향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다. 고향을 떠나서 열심히 살았고, 그 살아온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이번 기념공연이다.”

40주년 공연은 10월11일(오후3시·7시) 광주DJ센터에서 스타트를 끊는다. 11월 울산을 거쳐 내년에는 세종문화회관 공연도 추진중이다. 현재 일본에서도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6년 전 한국 활동을 재개하며 ‘심내로’를 발표했던 그녀는 최근 정통 트로트곡 ‘쟁이 쟁이’ 녹음을 마쳤다. 그녀를 스타덤에 올린 ‘수은등’의 작곡가 김호남씨와 수십년만에 다시 만나 만든 곡이다.

“요즘에는 이상하게 무대에 서면 자꾸 눈물이 난다. 지금껏 노래할 수 있는 게 행복해서 인듯하다. 40년 노래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만 두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결국 팬들 덕분에 다시 일어났다. 항상 신인이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하루 하루 열심히 무대에 서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싶다. 난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중인 그녀는 특히 일본 ‘열혈팬들’을 거느리고 있다. 국내 공연 뿐 아니라 베트남·러시아 공연도 함께 다니는 이들이다. 교포 2세인 한 팬은 ‘한복’만 보면 부모님 고생하신 생각이 나 그렇게 싫었는데 ‘한복’ 입고 노래하는 김연자의 무대를 보고 한국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한다. 신곡이 나올 때마다 앨범 1000장씩을 사주는 팬이다. 예순 셋에 처음 팬이 돼 20년을 함께 해온 오사카 출신 한 팬은 지금도 세계 각국의 공연을 쫓아다닌다. 자신이 건강한 이유를 “김연자 팬으로 노래 듣고 응원하는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팬이다.

그녀는 5살 때부터 동네 꼬마 가수였다. 광주 수

기동 아버지 이발소에서 콧물 질질 흘리며 노래를 불렀다. 수창초등학교 5학년 때는 ‘광주빛꽃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받기도 했다. 광주에 소단이 들어왔을 땐 아버지가 단장을 만나 그녀를 무대에 세웠다. 이미지의 ‘단발머리’를 ‘똑같이’ 부르며 인기를 모았다. 수피아여중 3학년 때는 아예 2주 정도 소단을 따라 공연하고 돌아오니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아버지는 노래를 제대로 해보라며 서울 친척집으로 보냈다.”

동네 꼬마가수였던 ‘이발소집 딸’

15살 때 앨범 내고 정식 데뷔

일본서 ‘여왕’ 반열...평양 공연도

“팬들 덕분에 포기 않고

지금껏 노래 할수 있어 행복”

오사카 레코드에 들어가 잔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노래 수업을 받았다. 나이를 속이고 비어홀에서 노래를 부르다 1974년 앨범 ‘말해 줘요’로 정식 데뷔했다.

일본 제작자에게 픽업돼 일본으로 떠난 게 18살 때였다. 3년 동안 일했지만 성과가 없자 쓸쓸히 귀국했고 힘든 날이 이어졌다. 그러다 1981년 메들리 음반 ‘노래의 꽃밭’이 360만장 팔리며 대박이 났다. 이후 ‘수은등’, ‘아침의 나라에서’ 등이 연이어 터졌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

“일본 데뷔곡이 1988년 서울올림픽 폐막식에서 불렀던 김옥운 작곡 ‘아침의 나라에서’였다. 항상 1절은 일본말로 부르고 2절은 한국말로 불렀다. 이 노래로 일본 최고 가수들만 서는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했을 때 너무 행복했다. 뒤에 부채춤 무용수를

꼭 세우고 부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일본에서만 앨범 47장과 싱글 49곡을 냈다. 특히 앨범 ‘암야항로’가 60만장이 팔리며 일본 레코드 대상을 수상했고 ‘엔카의 여왕’이 됐다.

“일본에서 낸 음반중에 ‘Song stylish’라는 게 있다. 몸 안에 노래가 들어오면 내 나름대로 해석한다. 트로트는 트로트대로, 발라드는 발라드 대로, 또 샹송과 칸소네도 마찬가지로. 나 역시 시작은 모방이었다. ‘이미지를 닮았다’는 말에 처음에는 신났지만 이후에는 고민이 많았다. 프로 세상에서 돌은 필요 없으니까. 모방 트라우마가 생겼다고나 할까. 이후 나만의 색을 내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가장 인상적으로 꼽는 공연은 두차례 진행했던 평양 무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 가수들에게 왜 김연자는 오지 않았느냐고 말한 내용을 신문에서 읽고 일본 조종편계를 통해 평양에 갔다. 김 위원장이 노래를 직접 듣더니 ‘메들리’ 때와 달리 ‘목소리가 많이 굵어졌다’고 하더라. 당시 북한 노래를 일본에서도 불러주면 좋겠다. 매년 평양에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두 약속 다 지키지 못했다. 일본에서 ‘북한 가수’라는 낙인이 찍혀 힘들기도 했다.”

최근 그녀의 이혼 소식이 화제가 됐다. 그녀는 밴드 악단장 출신 재일교포로 매니저였던 18살 연상 남편과 스물 셋에 결혼해 30여년을 살았다. 하지만 수익금을 거의 받지 못했고 위자료도 한푼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그녀는 일본에 작지만 직접 제작사를 차리고, 조심으로 돌아가 다시 출발선상에 서려 한다.

“체구가 적어서 그런지 온몸을 써서 노래하는 것 같다. 무대에서도 이리 저리 왔다갔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웃음) 흥을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끌어올린다고나 할까. 광주 공연 때도 그 기를 보여드리겠다. ‘수은등’ 등 히트곡과 신곡,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부를 예정이다. ‘천하장사 만만세’로 끝나는 ‘천하장사’는 지금도 씨름 대회에서 불리는 곡 이더라.”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월간 **에향** 9월호



자연에서 제2의 삶 시작하려면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집·경제학자 장하준 초대석 등 다채

광주일보 문화전문매거진 월간 ‘에향’ 9월(통권 227)호가 나왔다.

207쪽 분량으로 발간된 9월호에는 특집 ‘자연 곁에서 시작하는 제2의 인생’과 기획 ‘20주년 광주비엔날레 걸어온 길, 걸어갈 길’ 등 심층기사와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렸다.

최근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시작하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에향’은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새로운 양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귀농귀촌 양상을 다각도로 짚어봤다. 귀농을 감행한 이들의 다양한 사례와 보길도로 귀촌해 소설을 집필중인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 귀농귀촌 시유의 해아할 점 등을 세밀하게 조망했다.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에향 광주의 자부심이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올해 광주비엔날레의 모습과 발전방향을 점검했으며,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로 발돋움한 20주년의 궤적도 더듬어봤다.

신남도문화여지도에서는 최초 불교 도래지 영광을 찾았다. ‘성스러운 불법’이 들어왔던 성지 법성포를 비롯, 사시사철 외지인의 발길을 붙드는 ‘밤도둑’ 굴비와 모싯잎 송편 이야기 등 영광의 풍미를 담아왔다.

에향 초대석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를 만나 난마처럼 얽힌 경제 현안에 대한 진단을 들었다. 쌀시장 개방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농도 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책 등을 소개한다.

마주 앉은 책과 삶에서는 한길사 김연호(파주출판문화재단 이사장) 대표를 만나, 38년 ‘한길’을 달려온 출판인생과 책 이야기, ‘지혜의 숲’을 통해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를 들었다.

이달의 아티스트에서는 광주월드뮤직 페스티벌 인제진 감독의 공연기획자로서의 스토리를 들었다. 그가 전해주는 재즈 이야기, 재즈보컬 나윤선 씨와의 결혼생활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남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

2014 광주국제영화제 폐막

좌석 점유율 57%...‘어린이 극장’ 전회 매진 등 관객 급증 미하일 레드 ‘아태영화청년상’·까오핑 ‘황하 결혼식’ 관객상

2014 광주국제영화제가 1일 롯데시네마 총장로 관에서 폐막작 ‘베를린 장벽’(크리스찬 슈베츠) 상영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8일 ‘평화를 위한 기억’을 주제로 5일간 계속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인 조근현 감독의 ‘봄’을 비롯해 25개국 94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그 어느 때보다 스타들의 많은 참여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부터 화제를 모았던 올해 영화제에서는 관객수가 대폭 증가, 전체 좌석수 8986석 중 5100석을 채워 57%의 좌석 점유율을 기록했다. 매진 작품은 개막작 ‘봄’을 비롯, ‘황하 결혼식’, ‘다큐 김대중’, ‘평양에서 온 편지’ 등이었으며 ‘어린이 극장’ 섹션 4편은 전회 매진

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영화 특별전-시네마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영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한 영화제는 ‘한중 영화 포럼’, ‘한중 영화인의 밤’ 등을 통해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 중국 영화 관계자들이 자비로 영화제를 찾는 등 광주와의 교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영화 예술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영상 문화 산업을 이끄는 데 기여한 감독에게 수여하는 ‘아시아태평양영화청년상’은 ‘레코더’의 미하일 레드 감독이 수상했다. 또 광주국제영화제 관객상은 까오핑 감독의 ‘황하 결혼식’이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본 마음 가득 담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세요!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